

# 대학사편찬과 자료의 보존 \*

## — 그 현황과 과제 —

澤木武美 등저  
김정남 역\*\*

目次 :

- 1. 시작하며
- 2. 대학사 편찬과 대학사자료
  - a) 연사편찬 이념의 변화
  - b) 자료의 수집과 정리
  - c) 대학사자료의 성격
- 3. 대학사자료의 보존과 이용
  - a) 보존에 대해서
  - b) 이용에 대해서
- 4. 마치며

### 초록

본고에서는 대학에서의 연사편찬 사업을 종래와 비교하여 개관하고 편찬이념의 변화와 자료수집·정리를 둘러싼 문제점 및 대학사자료의 성격 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의 보존문제를 취급하고 대학사자료 보존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몇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다.

This article summarizes writing of university history in comparison with the past and identifies the change of ideas in university history writing, problems related to collection and arrangement of and the characteristics of academic archives. It also deals with the preservation problem of the collected materials and reviews some social meaning in preservation activities for archives at university in several aspects.

\* 原文 : 大學史編纂と資料の保存 - 現狀と課題 - 全國歷史資料保存利用機關連絡協議會編『記錄と史料』第3號 (1992)

〈연락처 : [wwwsoc.nacsis.ac.jp/jsai2](http://wwwsoc.nacsis.ac.jp/jsai2)〉

\*\* 부산대학교도서관 대학사자료실 사서 (namkim@hyowon.pusan.ac.kr)

## 1. 시작하며

본 논문의 구성을 말하기 전에 우리들 활동의 모체인 관동지구(關東地區) 대학사연락협의회(大學史連絡協議會)에 대하여 언급해 두고자 한다. 관동지구 대학사연락협의회는 「관동지구에 소개하는 대학의 대학사편찬 및 자료 보존·이용 등에 관한 공통의 제문제를 협의하고 정보교환을 추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규약제3조)으로 1988(昭和63)년 6월에 결성된 협의회이다. 현재 회원구성은 32개 대학 및 개인회원 약간명으로 이루어져 연간 5회 연구부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연구부회에서는 대학사연구(大學史研究) 방법론에서부터 연사편찬(年史編纂) 사업에 내재하는 문제점, 나아가서는 자료전시와 보수기술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주제를 채택하여 강연회·견학회·실습 등의 형태로 회원 상호간의 검토와 정보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결성의 경위나 연구부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회보 『大學アーカイブズ』(既刊第6號)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지만 한가지만 강조해 두고자 하는 점은 이러한 동향이 관동지구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90년 4월에는 관서지구(關西地區)에 「서일본대학사담당자회(西日本大學史擔當者會)」가 결성되어서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더욱이 올해 가을에는 처음으로 동서합동의 연구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50개교정도 대학에서 연사편찬(年史編纂)과 자료보존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에서의 연사편찬 사업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각 대학 모두 창립이래 분기마다 기념사업을 거행하고 거기에 덧붙여 연사(年

史)를 편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본문 가운데서도 언급한 것처럼, 연사(年史)를 단지 기념사업의 부산물로 취급하는 의식은 편찬 사업을 자기 완결적인 것으로 편찬 종료후의 자료보존에도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의미는 대학사자료가 끊임없이 유실되거나 망실될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같은 위험성은 지방자치체사(地方自治體史) 편찬사업에 대해서도 지적되지만 사립대학 등에서는 최악의 경우 남아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 최근 대학사편찬(大學史編纂)에서는 자료보존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 변화는 역사학·교육사학에 의한 대학사연구의 심화, 「공문서관법(公文書館法)」공포에 따른 자료보존 운동의 전개, 게다가 대학의 사회적 위치 변화라고 하는 객관적 조건에 강하게 영향받은 것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관동지구 대학사연락협의회의 기본적 입장은 그것들 제조건을 포함하는 가운데 개별대학의 틀을 넘어 상기의 목적달성을 지향하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협의회 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연사편찬(年史編纂)과 자료보존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개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대학에서의 연사편찬과 자료보존과는 논리적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만 많은 대학에서는 연사편찬을 계기로 자료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양자의 관계를 무시한 논의는 현실문제의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학에서의 연사편찬 사업을 종래와 비교하여 개관하고 편찬이념의 변화와 자료수집·정리를 둘러싼 문제점, 자료의 성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의 보존문제

를 취급하고 특히 「편찬에서 보존」으로 이행과정에서의 기본적인 과제에 대하여 몇 가지 논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 이 문제는 보존된 자료의 이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하기 때문에 현재의 연사편찬 사업에서 볼 수 있는 자료이용 실태도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사자료(大學史資料) 보존 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몇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맺으려 한다.

## 2. 대학사 편찬과 대학사자료

### a) 연사편찬 이념의 변화

일본에 있어서 대학사 편찬의 호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구테마이지만 이 절의 직접적인 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닌 것만은 전제로서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러한 일정한 역사를 가진 대학사의 편찬에 대해서 그 계기·목적·내용 3가지 점에 한정하여 최근의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의 다양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우선 대학의 연사편찬은 창립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예가 많다는 것이다. 그 경우 기념 대상이 되는 시기는 창립50주년·100주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큰 획기(劃期)가 되는 연수(年數)가 종래부터 눈에 띈다. 그러나 최근 20年史·30年史 혹은 65年史라고 하는 시간적 구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배경으로서 큰 시기마다 연사편찬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연속」적 성격을 가진 연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온 점, 혹은 대학사 연구나 편찬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새로운 연구성과가 끊임없이 요구되어지게 된 점 게다가, 창립기의 새로운 대학에서도 일찍부터 그 역사를 기록하는 중

요성이 널리 이해되어 온 점 등에서 편찬계기 다양화의 동향을 볼 수 있다.

다음, 이러한 편찬계기의 변화는 당연한 결과로서 연사편찬 사업의 자립화(自立化)로 나타난 점이다. 이전에는 축하 모임, 식전(式典)의 「선물」적 존재였던 연사도 그 편찬·간행자체가 목적으로 되고 서서히 여러 가지 의식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다. 그리고 일시적 기념사업에서 벗어나 계속적인 자료의 보존·이용, 정보서비스 등을 의식하면서 편찬사업에 임하는 사례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찬사업 자체의 독립과 병행해서 연사(年史) 내용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종래의 연사는 말하자면 제도사(制度史)를 중심으로 서술하거나 창립자나 총장·학장들을 현창(顯彰)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술연구, 특히 근대사연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보다 폭넓고 객관적인 역사상(歷史像)을 기술하려고 하는 연사가 눈에 띈다. 예를들면, 근현대사 전체와 개별 대학과의 관계를 논하거나 「학생」이나 「직원」 혹은 「지역」을 시야에 넣거나, 종래 자칫하면 경시·은폐되기 쉬운 분쟁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연구시각이 다양해졌다. 게다가 극히 최근에는 사상·정신사나 사회사 등의 방법론을 대학사 편찬에 적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학사 편찬의 계기·목적·내용을 둘러싼 의식에서는 명백한 변화를 볼 수 있다. 그 결과로서 편찬의 조직·비용·인간 등을 둘러싼 제문제에 대해서도 종래의 편찬사업과는 다른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연사편찬이념(年史編纂理念)」의 구체적 내용이 되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이하에서는 특히 대학사자료를 둘러싼 몇가지 문제에 논점을

한정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 b) 자료의 수집과 정리

대학사의 경우도 다른 편찬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가진 무게는 중요하다. 따라서 그 수집과 정리를 둘러싸고는 종래부터 시행착오가 반복되어 왔지만 최종적인 결론을 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상에서는 공통적으로 이하의 점들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 자료 수집은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수집을 위해서는 우선 자료의 소재상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내에서 자료를 통일적으로 수집 보존해 온 부과실(部課室), 전용 창고 등이 있다면, 조사의 시작으로서는 최적이지만 자료가 흩어져 버렸거나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는, 처음부터 큰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위 각 부서 및 관계자와 긴밀한 연락에 의한 정보수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점은 학외 자료를 수집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 등의 공립기관이나 같은 계통의 타 대학 혹은 각지의 졸업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 교환해 갈 필요가 있다. 결국 대학사 편찬을 보다 치밀하게 하고, 새로운 대학사상(大學史像)의 구축을 목표로 하면 할수록 이러한 자료 소재 조사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증대하게 된다. 이제 자료 수집에 즈음하여 자료군의 형태나 성격을 손상하지 않는 수집방법은 최저한의 상식이 되어 있다.

둘째, 수집자료의 정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법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각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료정리, 분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수집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정

리’(자료를 봉투 등에 넣고 위에 글을 써 두는 작업)는 하였으나, 자료소장자의 사정 때문에 이관하지 못한 자료의 별치 문서목록을 작성해 두는 기초적인 작업은 꽤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목록을 보면 자료의 형태·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가 하면, 간략히 모두를 일괄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 등 다양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하거나 독자적인 자료분류 항목을 펴내고 있는 대학도 있다. 편찬사업 종료 후의 자료보존을 고려한 가운데 신속하고 용이하게 자료정리를 할 수 있고 편찬에 이용하기 쉬운 방법을 확립하는 과제는 계속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료보존에 대해서 언급해 두고자 한다. 자료 보존은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연사편찬에 도움된다’고 하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강조된다면 연사편찬 종료와 함께 자료가 흩어져 없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반복된다. 따라서 연사편찬의 중요성과 함께 자료를 보존해 가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둔 연사 관련 간행물도 많아지고 있다.

또 대학사자료에는 프라이버시나 저작권에 관련된 (예를 들면 성적표나 연구서 등) 것도 많기 때문에 취급이나 보존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자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담당자나 보존에 적합한 수장고(收藏庫)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하루라도 빨리 대학 아카이브즈(University Archives) 등을 설립하기 위한 활동을 취해야 한다. 연사 간행 후의 자료보존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전제조건을 정비해 가는 것 또한 편찬사업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c) 대학사자료의 성격

연사편찬 사업 등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성격은 해당 대학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라고 하는 점에서 구할 수 있다. 그것은 국공립 문서관이 소장하는 행정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대학사자료는 역사자료의 범주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대학사자료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자료의 전체 모습이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싼 연구는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다. 현재 대학사자료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寺崎昌男「大學アーカイブズとはなにか」, 『東京大學史紀要』第4號所收, 1983年7月)

- 1) 대학운영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적문서(公的文書), 서류철, 사무기록, 기타 문서
- 2) 대학내 제기관의 의사록, 의견서, 서신, 보고서 등
- 3) 대학이 간행하는 연보, 요람, 잡지, 신문, 홍보지 등
- 4) 대학졸업생의 졸업증서, 앨범, 강의노트, 전기, 서신 등(특히 해당 대학에 관계 있는 것)
- 5) 학장, 학부장, 교수, 직원 등의 개인 소장 문서류 가운데 특히 대학에 관계 있는 것
- 6) 대학설립자, 기부자, 졸업생 등 관계자의 문서
- 7) 대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장(記章), 문표(門標), 기념품, 트로피, 기(旗), 제복, 제모 등의 물품
- 8) 대학에 관계 있는 사진,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필름 등
- 9) 대학사에 관한 간행물(중략)

10) 학문사적인 의미를 가진 실험기구, 연구실 제작품, 보고서 등

번호는 반드시 자료분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대학사자료가 가진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대학 아카이브즈가 수집해야 하는 주요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연사편찬 사업에서는 이 가운데 문서자료 수집과 구술 조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 기간으로 역사서를 편찬하는 사업목적 때문에 문서자료가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인허가(認許可) 관계의 공문서는 전쟁 전부터 정부·문부성의 강력한 통제와 관리를 받은 일본의 대학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어 적극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또 사립대학의 경우는 교우회·학원회 등의 지지모체(支持母體) 관계자료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최근 기독교계 대학의 연사편찬에서는 외국의 종파모체에 소장되어 있는 관계자료를 수집하는 예도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학내 문서나 간행물 등은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의 기능과 활동을 이는데 빠뜨릴 수 없는 역사자료로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자료의 수집범위는 학내·공공기관·기타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서신·일기 등의 사문서(私文書)에까지 미치고 있고, 공적인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는 개인적인 메모나 기사내용으로부터 대학의 실태를 해명하는 시도도 번성하고 있다. 문서자료 중심이라고 하면 수집범위는 확실히 넓다고 할 수 있다.

자료수집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엄밀한 자료비판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졌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수집자료는 상호관련이나 의미를 검토·확인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학사상(大學史像)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대학에서는

각 대학의 독특한 발전과정에 대응한 자료도 작성·보존하고 있고, 조직으로서의 일반성과 독자성(獨自性)을 역사적·사회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대학의 개성」을 밝힐 수는 없으므로 수집 자료나 학내 문서 등을 자료집으로 발행하는 대학이 늘고, 다른 대학과의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학사기요·자료집 등에 구술조사 보고가 게재되어 있는 점도 Oral History를 자료로서 기록하고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집자료의 공간(公刊)이 빈번해지고, 주변자료와의 관련성이 명백해질 수록 대학사자료 전체의 성격이나 사회성도 해명되어 가는 것이다.

한편 자료수집의 중심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음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사진집이나 도설(圖說)의 간행은 대학사연구 방법론의 심화가 「사진」등 영상자료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좋은 예이고, 기존 대학자료관(大學資料館)의 활동은 문서자료 이외 자료의 필요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한 기록매체의 변화는 대학사자료의 틀을 보다 넓혀가는 외적 요인이 될 것이다. 어쨌든 대학사자료의 성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상(現狀)에서는 문서자료를 중심으로 한 자료군으로 되어 있지만 근년 그 범주가 확대되고 구체적 내용이 다양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대학사자료의 보존과 이용

#### a) 보존에 대해서

연사편찬을 계기로 수집된 제자료의 산일(散逸)을 막고, 보존·이용해 가기 위해서 주의 해

야할 기본적인 것은,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염두에 둔 보존체제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편 기이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연사편찬을 위해 행하여진 자료수집이 편찬의 목적·기간·인원 등에 강하게 규정받는 한정적인 작업인 이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예산·결산서나 각종 의사록 등의 자료는 계속적으로 보존해야할 성격의 자료이고 연사편찬에 이용한 부분만을 보존한다고 해도 단순히 「남겨둔다」이상의 의미는 갖지 않고, 장래에도 의미 있는 이용 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편찬사업 종료후의 자료수집은 합목적으로 수집된 자료군의 누락부분을 보충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학외(學外) 자료의 수집뿐만 아니고 대학내 폐기문서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문서취급규칙」이나 「문서보존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규정개정을 동반하는 곳도 있다. 이들 제규정 가운데 「문서보존규정」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 내용여하가 자료수집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현행 「중앙대학문서보존규정(中央大學文書保存規定)」(1986年4月施行)에는 문서의 보존기간이나 관리 책임 등의규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다.

제18조 각 과실(課室)의 장(長)은 폐기 때에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보존문서에 대해서는 홍보부 대학사편찬과와 협의하여 이관한다. 이 때 보존문서목록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규정은 종래 각 부과실(部課室) 마다 임의 처리하여 온 동 대학의 문서보존 형태를 표준화

함과 더불어 「사료적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서자료의 보존업무를 조직적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편찬 종료후의 학내 문서 수집작업에도 규정상의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동 대학의 실태를 보면 대학사편찬과에 문서를 이관한 예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18조가 원활히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로서 우선 자료보존에 대한 학내 인식공유(consensus)형성의 어려움을 지적할 수 있다. 설명은 별도로 하겠지만 편찬사업 종료 때마다 반복된 자료 산일(散逸)의 「전통」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료보존 이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松崎彰 「私立大學の『年史編纂』と 資料保存」, 『明治維新史學會報』第18號所收, 1991年4月)

다음, 상기조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해 두고 싶은 점이 있다. 즉 조문에서는 이관문서의 「사료적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각 과실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각 과실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문서는 협의 없이 폐기된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역사적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규정이 역으로 폐기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위험성을 피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해 가기 위해서는 결국 수집을 담당하는 조직이 적극적으로 사료적 가치를 판단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인 자료의 보존에 관해서도 「임의처리」는 부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례로 든 중앙대학에서는 규정상의 문제점은 이미 자각하고 있다. 작년 대학사편찬과로부터 규정개정의 첫 논의가 거론되고 모든 폐기 문서를 대학사편찬과에 이관 후 사료위원

회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폐기한다고 하는 개정안이 제기된 것이다. 동 대학에서는 현재 100년사를 편찬하기 위한 편집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100년사 편찬과는 별도로 영속적인 교사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이다. 개정안의 골자가 담당조직의 판단에 의한 자료수집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이 제기는 규정개정에 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대학도 그 주지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보존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반드시 대학사편찬과에 연락하고 담당자의 판단으로 문서를 이관하도록 각 부과실장(部課室長) 앞으로 통보하고 있다.

「문서보존규정」의 개정과 정비를 요구하는 이러한 동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료보존의 이념을 규정상에 반영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학내문서의 수집작업은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전체에 관련된 문서관리의 일환으로 되지 않으면 큰 성과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근년 「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문서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제정·정비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자료보존 문제를 염두에 둔 제규정(諸規程)의 체계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료의 보존을 판단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대학사자료의 보존문제는 그 외에도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면 자료의 수장장소(收藏場所)와 수장방법의 문제, 보존을 담당하는 사람의 문제 등이다. 그러나 그것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자료보존의 필요성이 대학관계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규정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된

다. 앞 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연사편찬 사업에 부과된 과제의 하나는 실로 이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이용에 대해서

대학사자료는 종래 편찬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창고」로 직행하는 경향이 있고 언제나 산일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근년에 볼 수 있는 편찬이념의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아카이브즈(Archives)」적 기능을 갖춘 기관·조직이 각 대학에 탄생하게 되었다. 즉 「영속하는 시설」의 설치다. 이 경향은 창립 기념행사의 테두리 내에 매몰되어 있던 대학사를 고유의 연구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편찬체제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대학사자료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간행되어 온 개별 대학사는 그 근거가 된 사자료(史資料)를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충분한 사료비판이 행하여져 왔는지 어떤지도 몰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사의 본편(本編)과 병행해서 『자료집』이나 『연구기요』의 간행이 잇따르고 그것들을 통해서 연사의 기술근거가 명시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주류한 시점에서 대학의 역사를 표현하는 『도록』이나 『사진집』등도 편찬하고, 종래의 「제도沿革사 이미지(制度沿革史 Image)」를 불식하는 변화에 의한 대학사상이 생겨나고 있다. 문서자료 뿐만 아니고 영상·음성, 유물이라고 하는 “물건”을 대학사자료로 취급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점 또한 최근의 연사편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寺崎昌男씨는 이러한 경향을 「Intellectual History로서의 대학사」의 필수조건으로 들고, 무엇보다도 『연구기요』는 「대학의 공적 간행물

로서 나온 연혁사(沿革史)에 진정한 것을 철저히 써 갈 수 없다」는 테마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료집』에 대해서는 정사(正史)인 연혁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양자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대학백년사(東京大學百年史)』편찬의 경험을 근거로 한 가운데, 대학사를 편찬하는 「이상적」인 순서로서 「연구기요 안에 조금씩 사료 소개를 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확실한 자료집이 생겨나고 그것이 눈코가 붙을 즈음에 통사(通史), 부국사(部局史)를 만드는 형태가 가장 좋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寺崎昌男「日本における大學史研究の動向と課題-大學沿革史編纂を中心として-」『東洋大學史紀要』第4號所收,1986年3月)

그래서 각 대학의 『자료집』·『연구기요』등 주요한 간행 동향을 표1처럼 정리해 보면, 대체로 寺崎씨가 지적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이들 간행물이 반드시 연사편찬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편찬종료 후에도 계속 『자료집』이나 『연구기요』를 간행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고 편찬 중인 대학에서도 대학사자료 그 자체의 중요성을 학내외에 어필(appeal)하는 간행물이 되고 있다.(中央大學:『中央大學百年史編纂=ユース』, 東海大學:「50年史編纂室の窓から」『東海大學新聞』外). 이러한 경향은 대학사 자료의 이용 문제가 간행물 분야에 있어서도 개별 대학사의 편찬사업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전개를 보인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용문제가 광범위함은 자료보존 기능에 전시요소를 더한 成蹊學園史料館·國土館資料室·日本女子大學成瀨記念館·國學院大學校史資料室, 창립자의 업적을 전시 주체로 하고



있는 東海大學松前記念館, 東京女子醫科大學吉岡彌生記念室, 梅花學園澤山記念館 등의 활동을 보아도 분명하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대학사자료 전시를 통해서 대학이념(건학정신)에 역사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각 대학의 특색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대학사자료의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사편찬과의 관계만이 강조된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찬사업을 계기로 『자료집』·『연구기요』·『사진집』의 간행은 한편으로 대학사자료의 범주를 넓히고 계속적인 공개와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도 되고 있다. 게다가 편찬기관이나 자료관에 의한 정보서비스와 전시활동 등을 통해서 대학사자료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용되어 갈 것이다.

#### 4. 마치며

이상 대학사편찬과 자료 보존문제를 둘러싼 제과제에 대해서 서술해 왔지만 끝으로 대학사 자료를 보존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두고자 한다.

현재 대학사편찬을 특징짓는 경향은 개별 대학마다 자기 완결적인 편찬체제로부터 각 대학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편찬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점이다. 전계한 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각 대학이 수집해 온 여러 가지 자료와 편찬체제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고 있고 자료와 정보를 대학간에 상호 이용하거나 학외에 제공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 결과 대학사자료의 성격은 단지 「개별 대학사편찬의 재료」에 머물지 않고 서서히 사회성을 강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편찬이념의 변화를 반영해서 나

온 갖가지 간행물과 대학자료관의 여러 가지 활동은 명백히 대학사자료의 범주를 넓혀가고 있다. 대학사연구를 둘러싼 분석시각의 심화와 사진집의 간행·전시활동 등을 통해서 매우 광범위한 문서·유물 등이 「대학사자료」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이들 현상을 전제로 해서 대학사자료의 보존문제를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우선 대학사자료가 기본적으로는 개별 대학에 관련된 역사자료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 문제로서 해당 대학 이외에서의 자료보존은 불가능하고 자료의 산일은 직접적으로 역사의 상실로 귀착된다. 예를 들면 최근 사립 대학에서는 연사나 전시를 통해 대학이념(건학정신)을 강조하고 대학의 사회적 위치와 개성을 재인식하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재인식하기 위한 수단을 갖지 않으면 건학정신도 「제목」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자기의 역사를 스스로의 손으로 보존·계승해 간다고 하는 극히 상식적인 입장이 보존문제의 출발점이고 영속적인 자료 수집체제가 대학 고유의 역사를 기록해 가기 위한 기본적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 아카이브즈도 또한, 고유한 대학이념과 역사를 반영한 것이 되어야 하고 획일적인 아카이브즈 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대학사자료의 광범위함과 사회성을 고려한 보존체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학사자료는 궁극적으로는 개별 대학에 관련된 역사자료이지만 그 성격이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타 대학 및 자료 보존기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속에서 자리매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보존도 이들 관련 제기관과의 연계·협력아래 진행해야만 하고 배타적인 보존체제는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문 가운데 서술한 것처럼 대학사자료의 이상적

인 보존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관계 제기관의 유기적인 관련을 기초로한 보존체제가 형성되면 대학사자료의 전체 모습과 성격도 밝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사자료의 이용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대학사자료는 연사편찬에 이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학사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보존하기 위한 기관=대학 아카이브즈를 설치해 둔 대학에서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학술연구 자료로서 이용되는 예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시를 통해서 대학의 개성을 강조하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사자료와 그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투입하여 학생에게 대학이념(건학정신)을 전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다. 학생

이 자신이 배우고 있는 대학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현상은 어떻게 생각해도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졸업생, 사회인의 질문에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없어서는 「열린대학」이라고 할 수 없다. 여하튼 다채로운 대학 아카이브즈의 설립과 그 활동에 의해 대학사자료 또한 다양하게 이용되어 가는 점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를 거듭 대학이 흡수함으로써 「대학의 Identity」도 지금 이상으로 명확해질 것이다.

### 후기

본 논문에서는 논점을 대학사자료 문제에 한정하기 위해 부득이 할애한 논점도 많다. 그것들의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大學名	①	書名	刊行年	種別	對象年史	號數	備考
關西學院	私	學院史紀要	1991年	紀要	100年史	2號	1989年圖錄, 紀要に史料紹介あり. 學院史資料室
		學院史資料目錄	1984年	目錄	100年史	7號	
上智大學	私	大學史資料集	1980年	資料	60年史	4集	史料室
神奈川大學	私	大學史資料集	1984年	資料	60年史	8集	1988年寫眞集·大學資料編纂室
中央大學	私	大學史資料集	1984年	資料	100年史	11集	1985年圖說·大學史編纂課
		大學史紀要	1989年	紀要	100年史	4號	
東洋大學	私	大學史紀要	1983年	紀要	100年史	7號	1987年圖錄, 1987年資料編Ⅰ·上, 1989年同Ⅰ·下, 井上圓了記念學術センター
		大學史資料目錄	1986年	目錄	100年史	3號	
東京大學	國	大學史紀要	1978年	紀要	100年史	10號	1984年通史Ⅰ·資料編Ⅰ, 通史編3卷·資料編3卷·部局史4卷の合計10卷, 1987年3月編纂終了, 史料室に再編成
		大學史史料目錄	1987年	目錄	100年史	12號	
		百年史略年表稿	1976年	年表	100年史		
同志社大學	私	同志社談叢	1981年	紀要	100年史	6號	1979年通史編2卷·資料編2卷の合計4卷, 談叢に資料紹介あり, 社史資料室
		追悼集(同志社人物誌)	1988年	資料		3集	
名古屋大學	國	大學史紀要	1989年	紀要	50年史	2號	1989年部局編2卷, 1991年寫眞集, 大學史編纂室
日本大學	私	大學史資料目錄	1990年	目錄	100年史	2集	1989年寫眞集, 大學史編纂室
明治大學	私	大學史紀要	1981年	紀要	100年史	9號	1986年史料編Ⅰ, 1988年史料編Ⅰ, 紀要に史料紹介あり
		歴史編纂資料室報告	1967年	資料	100年史	16集	
法政大學	私	大學史資料集	1978年	資料	100年史	15集	1980年通史, 多摩圖書館資料課

注:①は國公私立の區別を示している. 常, 書名は大學名との重複を避けて略記し, 備考欄ではその他の刊行物や資料編纂機關名などを記入した.